

## 1 본회소식



### 후기 졸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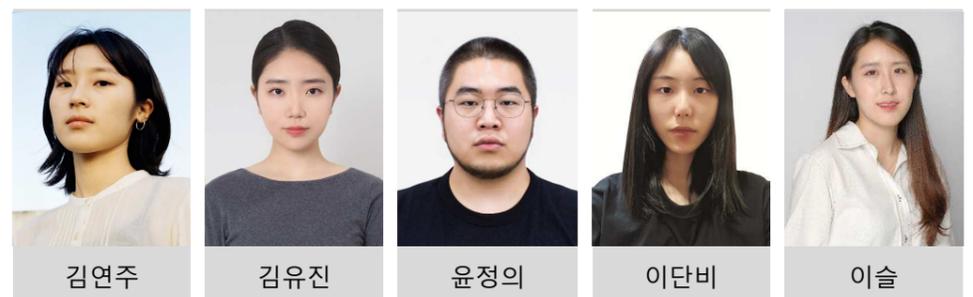
모교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9일 관악캠퍼스 체육관(71동)에서 개최되어 학사 29명, 석사 21명, 박사 7명이 학위를 받았다. 특히 이날

수여식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학위수여식을 치렀던 졸업생(74회 전·후기, 75회 전·후기, 76회 전기) 들도 참석했다. 주최측은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석 전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키트 검사 등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영상은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 장학금 수여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도 2학기 재단법인 관악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본회 권영걸 회장을 대신하여 이민주(78회화) 상임부회



장이 김연주(서양/학사1), 김유진(공예/학사4), 윤정의(조소/석사1), 이단비(동양/석사1), 이슬(디자인/석사1) 학생 등 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수상자 중 김연주 학생은 "장학금 소식이 많은 격려가 되어서 앞으로 남은 학기에 더 힘을 내서 학교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드린다. 장학금을 받으니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좋은 작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현재 4학년 2학기 중이어서 학부 졸업을 앞두고 많은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선물이 큰 용기를 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회는 매년 2회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있다.

## 2 본회 소식

### 자연을 논하다 개최



본회는 'The Nature' 2부 전시 '자연을 논하다'를 지난 8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포스코건설 더샵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본회가 기획하고 더샵갤러리가 주관한 전시 프로젝트 중 세 번째 전시로 강재희·권녕숙·김미혜·김선영·김지명·김진경·김춘수·김형주·김혜림·민수정·성기점·손문자·송근영·송인옥·신수진·유인수·이민주·이선원·이은숙·이중숙·장주연·장혜용·정경진·조인호·채현교·최현주·최혜인·아하컬렉티브 등 동문작가 28명이 출품했다. 전시공간인 더샵갤러리는 그린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는 강남구, 포스코건설의 친환경 미래 비전과 스마트한 주거문화의 상징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이 공간 안에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지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신을 인식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장학기금마련 소장작품전



본회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서울대총동창회 소장작품전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SNU장학빌딩 2층에서 열고 있다. 상설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이학숙(54회화)·김명호(55응미)·김성태(56응미)·현숙자(56회화) 동문 등이 서울대총동창회에 기증한 작품 49점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작품구입은 전시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QR코드로 접속하면 본회 산하 에스아트플랫폼이 운영하고 있는 에스아트몰(www.sartmall.com)을 통해 구입할 수도 있다. 특히 작품을 구입하면 구매자의 이름으로 서울대총동창회에 장학금이 기부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다.

## 모교 소식

### 8월 정년퇴임교수 수고하셨습니다!



#### 서양화과 교수 김정희(77회화)

독일 함부르크대에서 미술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양과 한국의 근현대미술, 미술과 영화, 공공미술, 공간정치학 등을 연구해왔다. '6월 민주항쟁과 그 후의 한국미술', '고야의 카프리초스에 표현된 자용동체적 선과 악'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모교 학술연구상을 받았으며, 현대미술사학회장을 역임했다.



#### 서양화과 교수 김춘수(77회화)

특유의 청색 유화 물감을 주제로 한 '울트라 마린(군청색)연작'을 통해 포스트 단색화가로 주목받았다. 붓 대신 손바닥과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직접 캔버스에 바르는 작업 방식을 고수해왔다. 토탈미술대상을 수상했으며 상파울루 비엔날레 대표작가, 대한민국예술원 우수 예술인으로 선정됐다.



#### 서양화과 교수 윤동천(81회화)

199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다원주의 경향을 대표하는 작가로 '예술의 일상화, 일상의 예술화'를 기치로 작품세계를 전개해왔다. 개념미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면서 '사회성'과 '일상성'을 바탕으로 부조리한 대상을 신랄하게 풍자했다. 국제아시아유럽비엔날레 금상, 석남미술상, 토탈미술상을 수상했다.

### 창의예술교실

조형연구소 김성희(82회화) 소장은 서울대 학생처에서 후원하는 대학 연구성과 사회 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대 50동 301호에서 서울대 교직원 및 관악구민을 위한 창의예술교실을 운영했다. 창의예술교실은 현재 미술현장에서 창작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강사의 작품을 이해하고, 작가의 특화된 작업 방식 및 표현 기법을 토대로 일반인이 창

### 2023빌라다르 예술의전당에서 개최

본회는 내년에 개최 예정인 동문전 제3회 빌라다르를 2023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올해 12월 개최되는 모교 졸업전에서 선정될 본회 회장상 수상작품전인 제2회 베리타스미술상전이 함께 개최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큰 호응을 받았던 소품전도 열어 대중들에게 작품소장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세렌디피티 Serendipity 개최



본회는 지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갤러리B(관장 심혜진)에서 기획전 'Serendipity'를 개최했다. 본회가 기획하고 갤러리B 초대전으로 열린 이번 전시에는 박수현(17서양)·성하은(17서양)·이현민(17서양)·이혜리(17서양)·장주연(12동양)·채희원(15서양)·홍해인(17동양) 동문 등 7명의 신진작가들이 참여했다. 전시의 제목 'serendipity'는 뜻밖의 재미, 우연으로 생기는 행운 등을 의미한다. 그 의미처럼, 다른 매체와 표현방식을 지닌 일곱 동문의 작품은 언뜻 보면 만나기 어려운 듯한 각자의 개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경험을 통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편 갤러리B는 본회가 서울대미대동창회장상을 수여한 것을 시작으로 인연을 이어온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대표 장부남) 산하 갤러리로서 이번 전시를 계기로 매년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초대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 청소년미술대전 최우수상 시상



본회는 지난 7월 22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시상식에서 주은수(인천중산고 2학년·사진) 학생에게 서울대학교미술대학 동창회장상(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이날 지난 6월 접수된 2324점의 작품 중에서 선별된 대상 2인, 최우수상 8인, 우수상 10인, 금상 30인 등이 시상됐으며, 수상작 전시는 지난 7월 20-23일 갤러리B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청소년들의 미술에 대한 소질을 발굴해 꿈과 자신감을 길러주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본회는 2011년부터 서울대미대동창회장상을 수여해 왔다.

서울대 소식

주한코트디부아르대사 접견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은 지난 7월 21일 알루 완유 외젠 비티 주한코트디부아르대사와 학술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비티대사는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의학, 건축 등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교육의 힘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오세정 총장은 코트디부아르 대학과 학술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프로그램 중 'SNU President Fellowship(SPF)'을 소개하며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관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또한 서울대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인 에티오피아 아다마 연구센터 건립 컨설팅사업을 언급하며 전문인력 양성 등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다. 비티대사는 이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우수한 지적재산과 투자지원을 당부했다.

후임총장 선출절차 시작

서울대는 지난 7월 18일 총장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후임 총장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교원·교직원 등 내부위원 19명과 외부위원 10명, 학생대표 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장 모집공고를 냈다. 공고 이후는 대상자 확정, 예비후보자 선정, 검증, 정책평가, 최종후보자 선출의 5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오는 9월 5일 면접·간담회·소견발표 등을 거쳐 4명 이내의 총장 예비후보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6일 검증소위원회와 정책평가단 등의 검증을 거친다. 이후 위원회는 고득점자 순으로 3명의 총장후보자를 서울대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가 선출한 후보자 1명을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내년 2월부터 신임총장이 서울대를 이끌게 된다.

중장기발전계획보고서 발간



서울대의 중장기발전계획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위기를 느끼고 대학의 체질을 바꾸어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1년 4월 오세정 총장의 요청으로 조직된 연구모임의 성과다. 연구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해 비전, 교육, 연구, 학생지원·복지, 국제화·사회공헌, 멀티캠퍼스, 재정, 대학운영체제의 8개 분과가 구성되고 85명의 학내외 위원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국가와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는 지식공동체'를 서울대의 새로운 비전으로 규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 학문 간 장벽 없애기,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개방적 교육체계 수립, 국가와 인류를 위한 도전적 융합연구와 사회공헌 등 총 7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수립된 중장기발전계획은 서울대 발전의 이정표로 활용되어 계획과 정책의 연계를 통해 비전 실현에 기여하고,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양성보고서 2021 발간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21'이 지난 7월 21일 발간됐다. 올해 보고서는 작년 10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한 '제2차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를 요약해 특집으로 실었다.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조사는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등 4개 집단에 6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2198명이 응답했다. 설문 내용은 소속감 및 포용성, 다양성 및 소수집단 존중, 공정성, 개방성 및 국제화, 학교생활과 대학운영, 인권헌장 제정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양성 증진을 위한 학내 노력과 성과가 확산되지 못하는데다 구성원들이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며 "학교 당국이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소통 채널을 어떻게 활용할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문화예술원 설립

서울대는 최근 문화예술원 설립 계획을 밝히고 초대 원장에 2년간 문화예술원을 기획해온 이중식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문화예술원은 미대와 음대 등 예술계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학생, 교수들이 기술을 중심으로 문화창작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학내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창작 활동을 체계적·지속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문화예술원 설립은 순수예술 이외에 융합문화와 대중문화 등에 대한 서울대의 시각 변화를 시사한다.

수해복구 자원봉사



서울대 학부생·대학원생 360여명이 지난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관악캠퍼스를 복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지난 8월 9일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우리 학교를 우리가 복구하는 것은 어떨까요?"라며 글이 올라왔고, 총학생회 '자정'의 주도로 자원봉사 모집이 이뤄졌다.

자원봉사자들은 피해가 큰 인문대와 사범교육협력센터, 제1공학관에 배치되어 강의실에 쌓였던 진흙을 치우고 책상과 바닥을 닦았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학생처장 명의의 활동증명서, 고무장갑 및 마스크, 간식 및 버거쿠폰이 지급됐다.

폐수영장 주민·학생 쉼터로 탈바꿈

매 학기 4개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내 학생사회공헌단 '들숨날숨'팀이 지난 30년간 활용되지 않은 교내 폐수영장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도시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간재생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폐수영장은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에 등장해 유명해진 장소이며 주변이 등산로라 교내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가치가 크다. 하지만 90년대 초 폐쇄되어 2019년 철거 결정이 됐으나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철거공사를 중단하고 서울대는 CCTV와 비상벨, 벤치, 가로등, 보도블록 등을 설치해 새로운 공간 조성의 기반을 다졌다. 네이밍공모를 통해 폐수영장을 '유영'이라 명명한 들숨날숨팀은 '폐수영장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 교내 밴드 동아리의 폐수영장 공연영상을 제작 공개하고 포토존과 풀장 등을 운영했다.

중앙도서관 '공간과 주체'展



중앙도서관 관정관의 관정갤러리에서 제16회 중앙도서관 작은전시회 '공간과 주체'가 지난 8월 23일 종료되었다. 이번 전시는 교내 유일 학생 미술동아리인 '미동'이 주관했다. '아름다운 움직임'이라는 뜻의 미동(美動)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정기모임과 작품집 제작 등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는 '공간', '주체', '공간과 주체'의 세 주제를 각각 담은 15명의 작품 20점을 관련 도서와 함께 선보였다.

신림선개통으로 여유로워진 통학



올해 5월 말 개통한 신림선 도시철도가 자리 잡으며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신림선 도시철도의 종착역인 관악산(서울대)역과 서울대 정문 사이는 350m에 불과하다. 신림선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열차에서 이동하며 책을 읽거나 영상 또는 수업 자료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새 노선이 생긴 후 틈틈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신림선은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버스의 막차가 끊긴 후에도 운행해 늦은 시각에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전철이용을 위해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타야 했던 대학동 거주 학생들은 교통환경이 개선되면서 대학동 상권도 더 발전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 4 총동창회 소식

###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 고문·자문위원 간담회

서울대총동창회(회장 김종섭/ 66사회사업)는 지난 7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고문·자문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조완규(48생물/국제백신연구소 한국 후원회 상임고문), 금진호(50법학/ 텔코웨어 회장), 오 명(64전자공학/ 전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신일(59교육심리/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고문과 이순재(54철학/ 배우), 정세욱(56법학/ 명지대 명예교수), 강인규(59수의학 대영이씨 회장), 이종상(59회화/ 서울대명예교수), 이형균(59정치/ 아시아기자협회 이사장), 윤병세(72법학/ 전 외교부 장관) 자문위원을 비롯해 서울대 오세정(71물리) 총장과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 김인규(69정치) 수석부회장, 이경형(66사회) 상임부회장, 이승무(72경제) 사무총장 등 15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김회장은 인사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원로 선배들에게 새 회장단의 출범을 알리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받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세정 총장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학교는 큰 문제 없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내년 1월 말 제 임기가 끝나 다음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가 가동됐다"고 전했다. 이승무 사무총장은 조찬포럼, 등산대회, 가족음악회, 국토문화기행 등 상반기 동안 본회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하반기 예정 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참석 동문들은 약 2시간 동안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합을 다졌다.

HOT NEWS  
1/2/3

오른 기념  
단양CC & 숙박권 EVENT

MallSNUA



### 동문전용쇼핑몰 오픈

총동창회 온라인쇼핑몰 'Mall SNUA'가 8월 31일 오픈했다. Mall SNUA는 서울대 동문만이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쇼핑몰로 김종섭 총동창회장 취임 직후 가칭 베리타스몰로 개설이 추진됐다. 4월엔 국내 폐쇄몰 운영업체 여러 곳에 설립 제안요청서를 보냈고 5월에 쇼핑몰 제작 및 운영업체를 선정, 계약했으며 6월 김인규(69정치) 수석부회장의 제안에 따라 Mall SNUA로 명칭을 확정지었다. 삼성전자, LG전자, 삼익악기, 패션형지 등 국내 대표 IT 기업과 악기, 패션 기업이 입점을 확정했고 현재 입점을 추진 중인 기업도 10곳이 넘는다. 패션의류, 패션잡화, 뷰티, 건강·식품, 디지털·가전, 생활·주방, 취미 등의 카테고리 구성되는데 1000만원대 대형 TV, 60만원대 디지털피아노, 5만원대 주류

등 Mall SNUA 판매물품 가격을 네이버 쇼핑 최저가와 비교한 결과 10~20% 저렴했다. 입점 업체로부터 총동창회는 판매 수수료도 받지 않는 것 또한 차별화된 특징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픈 쇼핑몰의 경우 공급가에 최저 8%에서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붙여 판매한다. 그러므로 판매 수수료가 없다는 건 소비자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동문 기업인의 호의를, 상품을 구입하는 동문에게 그대로 전하겠다는 김종섭 회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동문들이 선호할 만한 좋은 상품, 우수한 서비스라면 동문 기업은 물론 비동문 기업도 입점이 가능하다. Mall SNUA는 또 동문 음식점이나 동문 운영 호텔을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과 유명 동문 인사의 강연 또는 미팅을 상품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8월 말 오픈과 9월 중순 추석 대목이 맞물리면서 동문들에게 특별한 쇼핑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Mall SNUA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쇼핑몰 회원 가입 때 출신 학과와 입학 연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총동창회를 통해 동문 인증을 받으면 판매 물품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문 확인은 평일 일과시간에 가능하며, 물품을 구입하려면 쇼핑몰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홈페이지: mallsnua.com / 가입 승인 문의: 02-6730-7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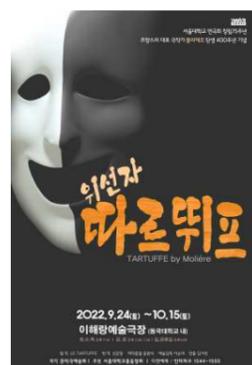
### 조찬포럼

- 일 시 : 9월 15일(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시청앞)
- 강 연 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 주 제 :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참 가 비 : 5만원(조찬 및 도서 제공)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성함과 입학연도 함께 표기

### 국토문화기행

- 집합일시 : 9월 22일(목) 오전 9시
- 집합장소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출구
- 답 사 지 : 문막·평창 일대
- 주 제 : 이효석 문학기행
- 안내해설 : 이민부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 참 가 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성함과 입학연도 함께 표기

### 관악극예술회 연극공연



몰리에르 탄생400주년 기념  
'위선자 따르튀프'(1664)

- 연 출 : 김시번(90경영)
- 출 연 : 나호숙(70가정관리), 조항용(73체육교육), 박재민(02체육교육), 박영주(03경영)
- 기 간 : 9월 24일(토) ~ 10월 15일(토)
- 장 소 : 이해랑예술극장(동국대학교)

### 9월 수요특강

- 일 시 : 9월 28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
- 주 제 : 메타버스 시대 바뀌어야 할 3가지
- 참 가 비 : 무료(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 신청기간 : 9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신청방법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문자1877-2039(전화수신불가),팩스02-703-0755,이메일 member@snu.or.kr

회비납부안내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5.27-8.30)-가나다순**

- 부회장 회비** 김지명(69회화) 안말환(76회화) 임철순(74회화) 장혜용(69회화) 조운영(74회화)
- 이 사 회비** 강재희(84동양) 김덕용(81회화) 신현경(74회화) 유혜란(82회화) 이애자(73응미)
- 일 반 회비** 서동화(73조소) 최지원(11동양)
- 평 생 회비** 정두희(97동양) 조인호(96동양) 최성원(83서양)
- 후 원 금** 김광현(57응미) 20만원  
이종복(62응미) 20만원
- 광고 후원금** D-pack 41만원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축하기 · 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회지광고를 통해 기업 또는 단체, 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전면	50만원
1/2면	30만원
1/3면	20만원
1/5면	10만원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 · 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하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전시 및 행사 · 인사 · 수상 · 개업 · 결혼 · 부고 등 동정을 메일(snuarta@naver.com)이나 문자(010-5235-1946)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 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 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하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부직포주머니 가격표

가로	세로(cm)	가격(원)
650	550	2500
850	700	3000
1000	850	3500
1100	900	4000
1250	1000	5000
1500	1200	7000
1700	1400	9000
1950	1500	10000

D-Pack에서 자체제작한 간편하고 튼튼한 부직포주머니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BOX 가격표

호	가로	세로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7	15.8	5,000	14.0	4,500	12.0	4,0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제46회 한울회전 개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회인 한울회(회장 이부연·71응미)가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제46회 한울회전을 개최한다. 한울회는 1980년 관훈미술관에서 창립전을 시작으로 2021년 한전아트센터 갤러리까지 45회에 이르는 정기전을 매년 열어 왔다. 한울회란 명칭은 큰 울타리란 뜻으로, 이 안에서 작품발표를 함께하며 선배 동문의 세대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8월 31일 열린 개회식에서 이부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울회는 1980년에 창단되어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동안 꾸준히 그 실력을 닦아왔고 미술이라는 전공은 평생 노력하는 전공이며 한울회 회원들이 이를 실천하신 승리자"라며 서로 격려하고 배우며 같은 전공으로 함께 열정을 쏟아내시는 회원님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이러한 전공을 택했다는 것은 평생

의 큰 행운이라고 여겨진다. 한울회를 통해 선배들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또한 한울회를 통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인재가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 권영걸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울회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 동문들의 아름다운 동행이며, 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가 함께하는 행복한 어울림"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울회는 쉽 없이 창작에 매진해 왔고, 한울회 덕분에 못 만나던 선배들도 작품들도 자주 교류할 수 있는 듯 하다. 한울회를 이끄는 이부연 회장의 리더십이 자랑스럽고, 또 밤낮없는 열정으로 오랫동안 흐트러짐 없이 예술의 자리를 지켜온 한울회 동문들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모교 김성희 학장은 축사에서 "전공이 다양할 뿐 아니라 작품의 경향들도 다양한데, 여기에는 삶의 희노애락이 묻어난다. 여성들이 창작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창작의 정신을 중심에 두고 끈기있게 작업해온 회원들께서 작업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해오신 점에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한울회 회원들의 창조적인 작가정신과 나눔의 마음은 사회적으로 좋은 기류를 형성시켜주시면서 후학들에게도 용기를 심어주신다"고 말했다.

한울회 세미나 안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회(한울회)가 개최하는 세미나가 오는 9월 21일 수요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73동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안수경(85공예) 한울회 홍보간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개회사와 축사 후 프랑스정부 문화예술 공훈훈장 오피시에를 수상한 김인중 신부가 '동경'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짧은 휴식 후 최근 2022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가 '그림+책 작가 이수지입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응답시간과 한울회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한 뒤 마무리된다.



세미나 일정안내

- 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오후 1:30-3:30
- 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73동 대강당
- 일정 :
  - 1:30-1:40 개회사 및 축사
  - 1:40-3:20 김인중신부 세미나
  - 2:35-3:15 이수지작가 세미나
  - 3:20-3:30 장학금전달 및 폐회
- Zoom : <https://snu-ac-kr.zoom.us/j/92137422867>



세미나 '동경' 김인중(59회화)



김인중 동문은 1963년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민전 1회 대상을 수상했다. 이후 스위스 프리부르대와 파리 가톨릭대에서 수학한 김동문은 1974년에 도미니코수도회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50년 가까이 세계적인 스테인드글라스 작가로 활동해온 김동문은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며 전 세계 200여 전시회, 샤프트르대성당을 비롯해 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 세계 38개 나라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해왔다. 2010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공훈 훈장인 오피시에를 수상하고, 프랑스 가톨릭 아카데미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현재 KAIST의 초빙석학교수로 임명되었다.

세미나 '그림+책 작가 이수지입니다' 이수지(92서양)



이수지 동문은 모교에서 서양화를, 영국 캠버웰 예술대학에서 북아트를 공부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림책을 펴냈다. 이동문은 그림만으로 이야기를 이끄러 나가는 힘과 책의 물성을 이용한 그림책 작업을 특징으로 어린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세계와 현실 세계의 묘한 경계를 표현하는 독특한 책들을 선보여왔다. 2022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그림작가부문), '볼로냐 라가치상' 픽션 부문 스페셜 멘션, '한국출판문화상', '뉴욕 타임스 그림책상', '보스턴 글로브 혼 북 명예상' 등을 받았으며, 대표작으로 '여름이 온다', '강이', '선', '파도야 놀자', '그림자놀이', '거울속으로' 등이 있다.

**HANWOOL  
ARTISTS  
ASSOCIATION**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회

**한울회  
2022년 신입회원 모집**

입회하시는 동문들께 2022년 1년간에 한해  
입회비 면제

입회 문의 : [ccoqqo@naver.com](mailto:ccoqqo@naver.com)  
010-5545-0207 (사무국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회 (한울회) 홈페이지 <http://snuhaa.com>

동문 갤러리 탐방

누크갤러리

조정란(80음미)



조정란 동문이 2013년 삼청동에 개관해 2018년까지 30여회의 전시를 가졌던 누크갤러리가 삼청동시절을 마감하고 2018년 9월 종로구 평창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nook gallery는 여러 분야의 작가와 전시를 만나는 작고 아늑한 공간을 목표로 규칙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모든 장르의 전시를 전시 기획한다. 지금은 평창동에서 새로운 누크갤러리를 꾸려가는 조동문과 본회 편집부가 대담을 나누었다.



1 갤러리 이름 누크nook의 의미는?

'nook'는 구석진 곳의 아늑하고 조용한 공간이란 의미를 가진다. 자신만의 작고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을 찾아 시간을 보내며 사색하고 미술과 친해질 수 있는 갤러리가 되고자하는 취지에서 누크갤러리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 nook gallery는 그 의미를 전하기 위해 영문으로 쓸 때 모두 소문자로 쓰인다. 2013년 처음 개관했던 삼청동 공간이나

2018년 이전의 평창동의 공간은 서울의 구석진 곳에 위치한 작고 아늑한 공간이며 꾸준히 전시를 이어가는 갤러리로 미술을 사랑하고 미술과 친해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nook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2 갤러리를 삼청동에서 운영하다 평창동으로 옮겼는데 전시의 주제나 방향성에 변화가 있는지?

2013년 개관전을 2인전으로 시작하여 19회의 2인전을 포함한 30회의 전시를 삼청동 공간에서 열었다. 당시 회화장르에 비해 전시기회가 적었던 조각이나 설치작품을 함께 전시해 회화작품을 보러온 관람객에게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평면과 입체작품이 함께하는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어나가려는 의도로 꾸준히 2인전을 기획 전시하였다. 그 후 2018년 평창동으로 공간을 이전하면서 그동안 누크갤러리에서 전시했던 모든 작가들이 함께한 <누크갤러리 살롱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4회의 전시를 열었으며 지난 9년간 총 64여회의 전시를 진행했다. 평창동으로 이전하면서 한 해에 기획하는 전시의 틀을 다지고 있다. 한 해의 첫 전시는 2017년부터 진행해온 스승과 그 제자들이 함께하는 전시가 열리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꾸준히 작업해온 50대 이상의 중간작가 전시, 공예전, 사진전, 신진작가 후원 전시, 2인전, 개인전 등 누크갤러리 전시취지에 맞는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3 전시를 기획하면서 기억에 남는 전시나 작가는?

2017년 전시했던 정희승, 오종 2인전 <You are a Space>에 전시했던 오종작가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신진작가로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하게 된 설치작가였다. 함께 전시했던 정희승 작가(2020 올해의 작가상 수상)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진작가였고 두 작가의 전시는 멋진 공간을 만들어 냈다. 인지도가 있는 정희승작가의 작품을 보러 많은 미술관계자와 관람객들이 찾아왔고 전시를 찾은 모든 관객들이 두 작가의 섬세하고 신선한 전시에 감탄했으며 오종이라는 젊은 작가를 인지하게 되었다. 전시에 다녀간 한 미술관계자의 추천으로 오종은 다음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현재까지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20년 '송은미술대상전'에 선정되었고, 2022년 '김세중 조각상' 청년작가상을 받았다.

4. 갤러리스트의 시선으로 요즘 미술계를 바라보는 생각은?

2007년 미술시장의 호황을 지낸 후 수년간 침체됐던 미술계가 2년여 전부터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다. 미술에 관심을 가지는 연령대의 폭이 넓어졌고 미술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은 미술사를 공부해가며 지식의 폭을 넓혀간다. 가상화폐의 열풍은 미술의 영역을 가상세계로 확장시켜 놓았다. 미술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게 커져가고 호황의 정점은 언제인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젊은 신진작가들의 신선한 작품들을 순서를 기다려 구매하고 원로작가들의 고가작품 수요는 끊임이 없다. 그러나 오랜 시간 작업 활동을 해온 50~60대 중간작가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전시기회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라에서 주는 신진작가 후원은 넘쳐나는데 중간작가들을 위한 후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50~60대



전업작가들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외침은 소수의 미술인들 사이에서 오고지만 정부는 오로지 젊은 작가 후원에만 관심이 있다. 물론 어느 정도 나이까지 후원을 해주면 스스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힘든 작가의 길을 가고 있는 중간작가들에게 공간 지원이나 작품 활동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미술계의 미래를 위해 그들이 탄탄한 원로작가로 커나가기 위한 후원은 소소하게나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5. 앞으로의 계획, 어떤 전시를 하고 싶은지?

누크갤러리는 전시를 위한 공간이다. 작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작가와 관람자가 공감대를 이루며 함께 참여하는 좋은 전시를 하는 갤러리, 작가들에게는 꼭 한 번 전시해 보고 싶은 갤러리,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갤러리로 인식되길 바란다. 전시기획의 주제나 개념에 치우치지 않고 작가와 작가, 작가와 기획자, 작가와 관람자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에게 스미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누크갤러리의 전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6. 기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규칙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꾸준히 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뛰어난 자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가 결국에는 좋은 작가 또는 미술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누크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4길 8-3 (평창동 467-4) (우) 03004

● 대표전화 : 02 732 7241

● 팩스 : 02 733 7241

● 관람시간 : 화요일 - 토요일 : 11 : 00 - 18 : 00

공휴일 : 13 : 00 - 18 : 00

일요일, 월요일 휴관

● 문의사항 : nookgallery1@gmail.com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차섭(59회화/1940-2022)**



서양화가 김차섭 동문이 지난 8월 28일 향년 82세로 별세했다. 1940년 일본에서 출생한 고인은 1944년부터 경북 경주에서 자라 경주고와 모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1967년 파리비엔날레 참여작가로 선정됐다. 고인은 모교 동문인 곽훈 등과 1969년 한국아방가르드협회를 창립하는 등 제도권 미술에 반발하는 실험적인 작품활동을 했다. 1970년 도쿄판

화비엔날레, 1971년 상파울루비엔날레 등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고, 이화여고 동료교사 김명희(68회화) 동문과 1975년 미국으로 건너가 이듬해 결혼했으며 프랫인스티튜트에서 석사과정을 함께 마쳤다. 고인의 섬세한 판화작품은 미국 화단의 눈길을 끌어 뉴욕현대미술관 등 주요 기관에 소장됐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고인은 판화용 화공약품의 영향으로 눈병이 걸려 한때 작품활동을 중단했다가 건강이 회복되자 1990년 귀국해 강원도 춘천의 폐교에 작업실을 차리고 뉴욕과 춘천을 오가며 30여년간 작품활동을 해왔다. 2002년 이중섭미술상과 2008년 이인성미술상 등을 받았다.

**카이스트 초빙석학교수 임명 김인중(59회화)**



빛의 화가 김인중 동문이 카이스트 과기특성화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초빙석학교수로 임명되었다.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스위스 프리부르대와 파리 가톨릭대에서 수학했다. 국전 특선, 민전 1회 대상을 수상한 김동문은 1974년에 도미니코수도회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50년 가까이 활동해 온 세계적인 스테인드글라스 작가로, 프랑스 브리우드 생줄리양성당 등 세계 50여 성당

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제작했다. 한국에도 용인 신봉동성당에 그의 작품이 있다. 김동문은 현재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 5월부터 카이스트 중앙도서관 학술문화관의 가로 10m, 세로 8m의 천창을 53조각의 스테인드글라스로 채우는 작업을 하고있다. 김동문은 특유의 화려한 색깔을 담은 추상화들을 한국의 서예붓, 서양의 나이프, 때로는 스프레이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그린 그림이 전사와 추가 수작업을 거치면 스테인드글라스로 변신하게 된다. 김동문은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행위"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다. 김동문에게 그림과 스테인드글라스는 신을 향한 진리를 얻는 도구인 셈이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카이스트가 세계 정상으로 나아가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이 필요하며, 그림과 음악 등 예술에서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김동문을 초빙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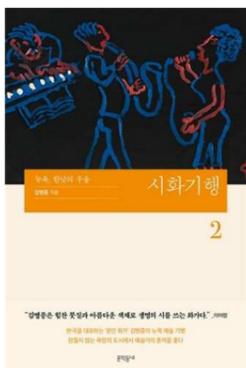
**Wook-Kyung Choi : Abstractions 최옥경(59회화/1940-1985)**



작고한 최옥경 동문을 조명하는 대중강연 'Wook-Kyung Choi : Abstractions(최옥경: 추상)'이 지난 8월 6일 비영리 한인미술인지원단체 AHL Foundation(대표 이숙녀)과 뉴욕한국문화원이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은 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었다. 최동문은 1940년 서울에서 출생해 서울예고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 후 화가이자 미술교육자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했다. 최동문

은 1960-70년대 팽창하던 한국 현대미술계를 이끌며 추상표현주의와 팝아트의 영향을 받은 회화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작가다. 비록 4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나 그는 여전히 한국미술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작년 10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최동문의 회고전이 열리기도 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워크아트센터 큐레이터 빅토리아 성이 최동문의 생전 업적과 작업세계를 탐구했다. 연사인 빅토리아 성은 워크아트센터의 시각예술부문 어소시에이트 큐레이터로 현대미술가들과 함께 전시회, 출판물 및 공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대중강연시리즈는 뉴욕한국문화원과 알재단이 협력해 2011년부터 운영, 지금까지 사랑받는 장수 교육프로그램이다. 대중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강연을 제공해 누구나 한국의 시각예술문화에 친숙하게 접근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시화기행2 출간 김병중(74회화)**



김병중 동문이 지난 7월 24일 문학동네에서 새로운 수필집 '시화기행2-뉴욕, 한낮의 우울'을 발표했다. '시화기행2-뉴욕, 한낮의 우울'은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시화기행1-파리, 고요한 황홀'의 후속작이다. 1권이 프랑스 파리와 예술가들에 대한 기록이라면, 2권은 미국 뉴욕을 사랑한 아티스트에 대한 책이다. '시화기행2'에는 뉴욕을 중심으로 성장한 소설가인 에드거 앨런 포, F. 스콧 피츠제럴드, 뮤지션이자 노벨문학상을 받은 음유시인 밥 딜런, 유머를 사랑하는 영화감독 우디 앨런 등 미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흔적을 찾는다. 김동문의 이전 수필집 시리즈인 '화첩기행'이 국내를 여행

하며 우리 예술가에 대해 다뤘다면 '시화기행' 시리즈는 해외를 떠돌며 해외 예술가와 예술가를 키워낸 도시를 탐구하고 사색하는 이야기다. 파리, 뉴욕 편에 이어 더블린, 도쿄, 베이징 편도 출간 예정이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에서 동양화 학사와 석사학위를, 성균관대에서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글과 그림의 경계를 넘나드는 화백이자 문필 향이 짙은 작가로 불린다. 모교 교수와 학장, 서울대미술관장을 역임한 김동문은 현재 가천대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며 최근에는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54m에 달하는 대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송화분분'을 제작했다. 세계 각국에서 20여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김동문의 작품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증정되기도 했다. 생명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김동문의 다양한 작품은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남원시립 김병중미술관에서 상시 만나볼 수 있다.

**뉴욕의 화가 이문봉(76조소)**



미국 뉴욕에서 활동중인 이문봉 동문은 1980년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뒤 1983년 미국으로 건너가 1987년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프랫인스티튜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을 기반으로 자리잡은 이문봉은 평면회화와 판화를 다루는 서양화가로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984년 서울 인사동 제3미술관 초대로 첫 전시 'Four Artists'에 참가하며 작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한 그는 한국과 뉴욕을 오가며 1987년 'Figurative Ideas'(갤러리코리아), 1992년 'Seoul/Newyork92'(갤러리코리아), 1996년 'TWO ARTISTS'(허친스갤러리) 등 6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1987년 뉴욕 히긴스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1988년에 서울 갤러리토, 1992년과 1996년에는 뉴욕 브룸세인트스갤러리에서 5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개인 홈페이지(<http://moonbonglee.com>)에 지난 모든 작품활동을 정리해놓은 이문봉은 꾸준히 작품활동에 정진하고있다.

**암태소작항쟁 기록작업 서용선(75회화)**



서용선 동문이 내년 암태도소작항쟁 100주년을 앞두고 전라남도 신안군과 함께 옛 암태농협창고에 암태소작항쟁의 역사를 예술작품으로 기록하는 독특한 작업을 시작했다. 모교 회화과 졸업 후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서동문은 제1회 중앙미술대전에서 특선 입상하며 화단에 등단했고, 모교 교수로 20여년간 재직했다. 광부와 계유정난, 동학혁명, 6.25 전쟁 등 한국의 굵직한 역사를 거칠고 굵은 선과 강렬한 색으로 화폭에 담아내면서 서동문은 역사화가이자 민중화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2001년 독일 함부르크 국제미술아카데미 초대교수직을 맡기도 하였던 서동문은 2008년 이후 전업작가로 독립해 국내외 100여회의 개인전, 500여회에 이르는 단체전을 개최했다. 이번 암태도 소작항쟁 기록작업은 특히 사람과 역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서동문에게 걸맞은 작업이다. 곧 100주년을 맞는 암태도소작항쟁의 1923년 8월부터 1924년 8월까지 신안군 암태도의 소작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농민항쟁으로 소작인들은 암태소작인회를 조직해 암태도의 식민성과 지주를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하는 소작항쟁을 벌였다. 이는 단순 소작인들뿐만이 아니라 암태도 전 주민들이 참여한 민중항쟁이었다. 서동문은 지난 5월부터 신안 일대를 답사한 후 암태농협창고에서 작업을 시작, 창고 내외부를 사용해 암태도소작항쟁의 전개과정을 현대예술의 실험적 표현방법으로 형상화해 암태도소작항쟁 100년을 예술로 담을 계획이다.

**사랑의교회 아트디렉터 안기순(78회화)**



안기순 동문이 최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 아트디렉터가 되었다. 예술관련기관이 아닌 곳에서 더구나 교회에서 아트디렉터라는 직함은 생소하지만 사랑의교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문화예술과 선교가 함께 하는 문화선교를 차세대 선교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사랑의교회는 예배당이면서도 볼거리가 있는 미술관이 되도록 하여 영적인 위로뿐 아니라 예술적인 감상거리도 제공하여 교회 성도와 인근 지역 주민 및 사랑의교회를 찾는 사람에게 마음의 쉼터가 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미술관 같은 예배당' '예배당 같은 미술관'을 지향하며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예배당 곳곳에 전시하면서 지역사회에도 오픈하여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또한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에서 해마다 9월에 열리는 서리풀축제의 지역문화행사에도 적극 지원하며 참여해왔다. 올해 사랑의교회에서는 빛의 축제라는 테마로 참여하면서 본당의 대형 LED전광판에 사랑의교회에서 공연했던 러시아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등의 공연영상 상영과 함께 교회 지하 5층에 있는 갤러리에서 작가 35명의 작품으로 미디어 파사드 사랑의빛 벅커전을 준비하고 있다. 안동문은 모교 졸업 후 7회의 개인전 개최와 한국미술작가 대상을 받았으며, 예회랑 큐레이터와 사랑의교회 미술인선교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디자인전문 유우D&C 대표를 맡고 있다.

**우민미술상 수상 김지은(95서양)**



김지은 동문이 지난 8월 17일 우민아트센터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제21회 우민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동문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더불어 우민아트센터에서의 오는 2023년 하반기 개인전 기회가 주어진다.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동 대학원 서양화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미국 크랜브룩 예술대학(Cranbrook Academy of Art)에서 회화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동문은 재개발과 철거가 반복되는 도시의 불안정한 풍경에 주목하며 도시화의 본질을 고찰하는 작업

을 지속해왔다. 김동문은 자신이 거주했거나 경험했던 주변 환경을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조사하고 분석, 고유의 장소성과 가치를 탐구한다.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주거 공간이 균질화하고 공간이 장소성을 상실하며 발생하는 '장소와 거주지의 위기'에 주목해 이를 회화와 설치 작업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로 김동문은 '제도화된 풍경'(인사미술공간·서울·2005)으로 시작해 '집 같은 비장소'(갤러리 시몬·서울·2021)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우민미술상은 충북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난 2002년 우민재단에서 설립한 '올해의 좋은 작가 미술상'이 전신이다. 2016년부터 우민아트센터가 주최·주관해 공모를 하고 있으며 2018년 '우민미술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우민미술상은 역량 있는 만 40세 이상 중견 작가의 지속적인 창작을 지원하며 수상작가의 전시를 이듬해 개최함으로써 작품 발표 기회도 제공한다.

**아트컨설팅 권이선(석02미술이론)**



뉴욕을 기반으로 전시기획과 아트컨설팅을 하고 있는 권이선 동문이 최근 기획한 전시와 기업 컨설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한국에 소개해왔는데, 지난 달에는 밀라노에서 활동하는 정득용 작가를 개인전 형태로 소개했다. "뉴욕은 물론 유럽에는 그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입지를 굳혀나가는 한인 예술가가 다수 있는데,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획자이다 보니 그들을 국내에 선보여야겠

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게 됐다"는 권동문은 국제 예술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큐레이팅하고 컨설팅하는 회사 LYK Art Projects를 운영하며, 글로벌 아트컨설팅그룹 벨베누아르의 파트너로도 활동 중이다. 권동문은 고려대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고 서울대대학원 미술이론석사와 프랫인스티튜트 문화예술경영석사 학위를 받았다. 수많은 세계 현대미술작가를 인터뷰했고, 현대미술에 관한 글들을 잡지에 기고하며 뉴욕과 한국 미술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특히 디자인과 건축 분야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퍼블릭 아트에 관한 글을 다수 집필하며 뉴욕 미술관과 공공미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저서로 '뉴욕의 특별한 미술관', '모두의 미술', '위대한 서양미술사 1, 2'가 있다. 특히 최근 출간한 '위대한 서양미술사 2'는 자연스럽게 미술사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미술을 모르는 이를 위한 교양서'라는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강연 서유경(06디자인)**

디자이너 출신 변호사변리사 서유경 동문이 지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울산 남구 울산콘텐츠코리아랩 3층 SW교육장에서 열린 울산콘텐츠스타투데이 프로그램에서 지식재산권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 종로 광화문에서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동문은 모교 디자인학부를 졸업한 후 경북대학교 법학석사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디자인법 전문 변호사의 길을 닦았다. 현재 서동문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하고,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에서 문화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



도 제공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교육기관을 비롯해,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등 정부 공공기관,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스 소담상회, 노트폴리오와 같은 스타트업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강의를 해왔다. 특히 서동문은 올해 1월과 2월 사이 모교 디자인학부 후배들의 요청에 의해 '디자이너를 기르는 법'이라는 주제로 다섯 차례 법률강의를 한 것이 그동안의 강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즐겁고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한다.

개인전 **홍순무(54회화)**



홍순무 동문이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주 기린미술관에서 제26회 개인전을 갖는다. 홍동문은 전주고등학교에서 5년간 봉직하다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35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전시에서는 홍동문이 지켜온 예술 세계와 70년을 작가로 살아온 그의 삶을 볼 수 있다. 올해 미수(88세)의 나이에 도 병원 가는 일 외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화실에 출근하며 "이곳에서 죽으면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등 서구 현대 미술이 넘치는 세상에서도 독심 있게

본인만의 예술 세계를 지켜왔다. 물감과 열정 하나로 예술 세계를 지켜온 홍화백의 결정체를 볼 수 있는 전시다. 농촌 풍경화 17점, 인물화 7점, 풍경화 7점, 정물화 3점 등 총 34점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홍동문의 작품은 자연과 인물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농촌의 풍경을 성숙하게 표현한 것들로, 주로 고향 산천과 이웃 사람을 그렸다. 홍동문이 알고, 보고, 살아서 느끼는 삶의 진실만을 화폭에 담은 것이다. 그의 작품은 작품의 묘사나 내용 자체만이 아니라 작품의 색채까지도 현실감이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리얼리즘의 세계라고 일컬어진다. 특히 '농악'이 담긴 작품에는 홍동문만의 독특한 흥이 그대로 드러난다. 홍동문은 "신앙 믿음과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세계를 탐구하는 자세로 그림을 그렸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삶의 진실을 다해 그렸다"며 전시회의 소회를 밝혔다.

Summer **김종학(56회화)**



김종학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조현갤러리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적극적인 추상 실험 작가로 활동하였다. 도쿄국제판화비엔날레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도쿄예술대학에서 수학한 뒤 해외에서 활동하던 김동문은 1979년 설악산에 정착, 그 뒤로 '설악산화백'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특히 설악산은 계절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계절별 특성이

뚜렷하여 사계절을 연구하기에 최고의 무대가 됐다. 그 결과 제작된 지난 3월 'SPRING'전의 대형 작품은 전시장 입구에 배치되어 빗꽃비 흩날리는 공간에 온 듯한 압도감을 선사한 바 있다. 이번 'SUMMER'전에서 스케일은 더욱 커지고 내용은 촘촘해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기 다른 색과 형의 꽃들이 아우성치는 '판데모니움(Pandemonium)' 연작과 시원한 여름 숲을 파노라마로 옮긴 '풍경' 연작을 통해 싱그러움과 푸름을 만끽할 수 있다. 작품 제목 판데모니움은 '대혼란'을 뜻한다. 영국의 문학가 존 밀턴은 대서사시 '실낙원'에서 지옥의 도성에 '판데모니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판데모니움의 어원에는 '모든 영혼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18m에 이르는 '판데모니움'은 꽃을 비롯해 벌과 나비, 거미, 잠자리를 등 다양한 곤충과 식물들이 대혼란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모든 영혼이 모인' 형국이었다.

2인전 **김광현(57응미)**



김광현 동문이 참여하는 2인 전시회가 지난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이브갤러리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에서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한 후 1973년 뉴욕 Pratt대학원에서 패키지 디자인을 공부하였다. 이후 뉴욕의 JCPenney사에 근무하던 김동문은 한국에 귀국하여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지내며 한국사회 디

자인의 재인식과 산업발전을 위해 산업현장에 참여해 왔다. 2001년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김동문은 이후 시각전달디자인 전공을 바탕으로 회화작업을 시작하여 이번 국내전을 개최하였다. 디지털화의 기법이나 표현법을 뒤로하고 손의 감각에 의해서만 표현되는 감각성과 촉감성에 매료된 김동문은 탈디지털 지향의 표현을 즐기며 그만의 도취감에 빠졌다. 유화물감이 뒤섞여 그려지는 순간에 매료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붓을 쥐어가며 한쪽 한쪽의 그림을 그리는 김동문의 전시는 오늘날의 한 틀 속에 박힌듯한 미학적 표현기법의 보편성에서 탈피하여 관람객들이 겹겹이 쌓여지는 기쁜 순간을 즐기는 작가의 감각을 느끼게 했다.

Starry Night **홍선애(62회화)**

홍선애 동문의 개인전 'Starry Night'가 미국 캘리포니아 라구나비치에 위치한 샌드스톤갤러리에서 지난 8월 3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홍동문은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개성적인 조형언어로 화면에 담은 조형성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는다.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엄청난 힘과 속도, 움직임과 에너지, 혼돈과 질서 등의 무한대함을 자신의 유한한 캔버스 안에 넣어 표현하려고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상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 찾아낸 조형언어가 자유분방한 붓질과 흘리기, 뿌리기 등을 활용한 추상표현주의 기법이다. 3년 전부터 시작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Starry Night)' 시리즈



에서는 그 시각이 한결 가깝고 구체적이고 절실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홍동문은 뉴욕 파슨스스쿨오브디자인과 LA의 FIDM을 다녔다. 이후 회화, 사진, 그래픽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아트 전반에 걸쳐 국제적 명성을 쌓았고 한국과 뉴욕·LA 등지에서 국제아트페어 14회, 개인전 38회, 그룹전 80회 이상을 가졌다. 또한 2014년 LA 서울대미대동창회장을 역임했고, 서울대남가주동문회 공로상을 받았다. 현재 오렌지카운티 뮤지엄오브아트 이사과 뮤지엄 카운슬 회장, Newport Beach Art Foundation 이사, 한국미술협회 북미지회 고문 등으로 활동 중이다.

낙우회



동문 조각단체 낙우조각회(회장 주상민/86조소)가 제60회 정기전 '낙우회'를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모란미술관 별관 모란스페이스에서 개최한다. 참여작가는 강정호, 권창남, 김경섭, 김영호, 김수학, 김주환, 김형기, 노준, 류종민, 박도윤, 박민숙, 박진희, 백현옥, 원인중, 윤석원, 윤성진, 이경희, 이상윤, 이석준, 이은상, 이하림, 이현주, 장우진, 장을봉, 전준, 전항섭, 정연희, 정현도, 주상민, 최대율, 최명룡, 최유진, 최정희, 최

호정 동문 등 34명이다. 한국 최초의 조각그룹인 낙우조각회는 한국 조각기의 여명기인 1963년 강정식, 김봉구, 송계상, 신석필, 황교영, 황택구 동문 등 6명에 의해 결성되어 지난 50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정기전과 기획전을 개최해 왔다. 소속 동문들은 지천명을 넘어 이순의 나이가 된 낙우조각회가 조각의 길을 회간(回看)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시의 주제를 '회간'이라고 결정했다. 낙우조각회의 결성 당시 이름은 모교가 위치했던 동송동의 '낙산(駱山)'에서 따왔으며, 마치 낙타가 거친 사막을 건듯 조각의 길을 추구해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낙우조각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는 낙타 무리로서, 이번 전시 주제인 회의 순환론적 관점을 통해 세대간의 수평적 연결과 공감을 나누고자 하고있다.

신창세기 2장 이정연(71회화)



이정연 동문의 '신창세기 2장' 초대전이 지난 7월 6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이탈리아 나폴리의 카지나 데이 모자이치에서 열린다. 이동문은 모교 학생시절 이중상(59회화) 동문의 동양화교육을 받은 뒤 미국 프랫인스티튜트 교육 후 콜럼비아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거쳐 유럽에서 작가로 활동하는 등 동서양을 오가며 많은 경력을 쌓아왔다. 이동

문은 '두 세계의 대화' 작업을 통해 서양의 모더니즘과 동양의 영성을 만나게 한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전시는 이동문의 작품과 전시장의 독특한 연계성이 있어 더욱 빛난다. 전시장소인 '라 카지나 데이 모자이치'는 카포디몬테 왕립연구소에서 유래한 자개조각과 도자기조각의 모자이크로 유명한데, 붓 없이 손으로 물감을 섞고 검지로 물감을 퍼바르는 방식의 이동문의 작품들과 이 전시장이 상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찬미로 이어지는 작품들은 압도적인 시각적 충격, 정서적 호소를 불러일으켜 이러한 이동문의 표현적 실험은 인류와 자연의 관계를 생·식물적 결합으로 승화시켜 환경미술의 형태로 구체화시켜놓은 듯하다.

서울봄전 박현숙(75회화) 외

'서울봄전'은 회화과와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74학번부터 76학번 중 뜻을 같이 하는 동문들이 모여 이어온 전시로, 이번 29회 '서울봄전'은 지난 8월 1일부터 과천 갤러리까페봄에서 한 달간 열렸다. 이번 전시에 동문들은 각각 다양한 이십여 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강자영동문은 아카데미한 정물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유화를 출품하였고 박현숙동문은 유화와 샌드물타르를 이용하여 마티에르를 강조한 단색화 계열의 세련된 컬러 작품을 전시하였다. 요즘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창분동문은 자연 풍경의 핵심을 기하

학적 반추상으로 표현한 시적인 아크릴화를 선보였다. 전효순동문은 퀼트 솜



과 금속 위에 아크릴컬러로 마무리한 명품가방형태의 평면화를 통해 현대인의 소비문화를 풍자하였다. 조은영동문은 판화지에 아크릴과 연필을 이용해 컬러풀한 대소점들로 표현하면서, 작가의 심상풍 경까지 중첩한 화면을 선보였다. 현철주동문은 아파트건물과 그 뒤의 어두운 하늘 배경 등을 통해 우울한 현대인의 심상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홍미엽동문은 도시 속의 자아와 먼 바다를 향한 동경과의 괴리를 유화로 그려내었다.

BLUE HOUR 오병욱(78회화)

오병욱 동문의 개인전 'BLUE HOUR'가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위치한 아트사이드 갤러리에서 열린다. 오동문의 '바다' 작품은 미국 트럼프 전대통령 방문 때 청와대에 걸려있던 작품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이번 전시는 오동문이 6년만에 개최하는 개인전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원 아치, 평행사변과 같은 기조에 볼 수 없던 다채로운 작품과 함께 더욱 깊어진 오동문의 신작 28여점을 선보인다. 서울을 떠나 상주에서 작업에만 몰두한 지 30년이 훌쩍 넘는 오동문은 자연, 특히 바다를 화폭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가 보여줄 오동문의 입체적으로 표현된 물결을 가진 바다는 고요하면서도 어디를 향해 뻗어있는지 알 수 없는, 관람객들이 경건한 종교 의식을 떠올려보는 공간이 될 것이다. 모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 미술이론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한 오동문은 'Zeitgeist(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양가쥬망전(양주시립미술관)', '오병욱전(김세중미술관)', '한국의 바다와 섬(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등에 참여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대의 신화 권여현(81회화)

권여현 동문의 개인전 '현대의 신화 Myth Today'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울시 강남 논현동 갤러리J에서 열렸다. 권동문은 인간에 대한 실존과 자아에 관해 탐구하는 작가로, 이번 전시는 '낮선 숲의 일탈자들' 시리즈의 신작회화들을 선보이며 최근의 보다 경쾌하고 감각적인 작업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가 모색하고 있는 작품 세계를 새롭게 공개했다. 최근작은 빛이 느껴지는 투명하고 맑은 색채와 재빠른 붓 터치가 살아있어 즉흥적이고 감각



적인 화면을 보여준다. 모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홍익대학교수로 재직중인 권동문은 1988년부터 시작하여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OCI미술관 등 국내외에서 45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대만미술관 등에서 열린 440여회의 그룹전에 참가하였으며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올해의작가상, 하종현미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빛이 그리다 서효숙(81회화)

서효숙 동문의 초대전 '빛이 그리다'가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위치한 돈화문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서동문은 생명과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화면을 가득 채운 원색의 꽃잎 모티브를 통해 그림을 그려왔다. 그리고 그 꽃잎 위에 비추는 햇빛의 작용은 관람자들이 쉽게 초자연적인 그 무언가의 힘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꽃잎과 햇빛 속에 내재된 생명과 에너지를 포착하여 일상에서 무심코 흘려보낼 수도 있는 식물에 불과할지 모르는 꽃이 역동적 에너지와 성장, 부활의 상징으로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서동문은 자연스럽게 번지고 스미는 물감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지에 눈을 돌리기도 했다. 꽃의 모티브는 이제 사실적 묘사를 넘어 형상의 중첩과 반복을 통해 점차 추상적인 꽃잎의 형태가 겹쳐진 화면은 은은한 깊이감이 심화되면서 상징적인 표현에 의해 인간관계에 대한 사유를 유도한다. 모교 및 동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서동문은 중앙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했으며 18회 이상의 개인전과 국내외 다수의 아트페어, 단체전, 기획전에 참가했다.

찬란한 파편 박동진(82회화)



박동진 동문의 초대전 '찬란한 파편'이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삼청동 베카갤러리에서 열린다. 박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여러 레이어의 겹침을 이용해 화면 속에 연속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놓일 때 형성되는 흔적이 사물의 부재와 존재를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레이어 간에

생긴 복층의 구조와 중첩에 의한 효과, 시야의 가림에 의한 한정 효과는 독특함을 만들어내고, 각각의 레이어 흔적을 일부러 노출시킴으로서 시간 경과의 흔적을 나타낸다. 또한 이렇게 중첩된 레이어는 마치 지층처럼 겹겹이 쌓여 형식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에서도 입체적인 효과를 갖는다. 다중적 레이어로 이루어진 화면구성은 공간과 시간이 남긴 흔적을 다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중적 해석 또한 가능해진다. 이렇듯 박동문은 평면과 입체, 공간과 시간이라는 관계의 다양한 시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춘천교육대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인 박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46회가 넘는 개인전과 20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Border 안성규(86서양)**



안성규 동문의 초대전 'Border'가 서울 삼청동 베카갤러리에서 지난 8월 3일부터 16일까지 열려 하늘과 도시를 감싸고 빛의 조화를 담은 작품 20여점이 선보였다. 낭만주의적 풍경화가 송고한 하늘을 담고 있는데 반하여 그는 명상적인 모습을 화면에 담는다. 슬쩍 고개를 내민듯한 건물들은 그러한 모습에 사소한 도

시적 일상의 정서가 결합되게 한다. 이영훈 미술평론가는 "화면에 그려진 하늘과 건물들이 아우르는 풍부한 표정들은 정중동의 투명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무심히 지나쳤던 것을 우리 앞에 펼쳐 놓고 있다"며 "그의 그림은 도시적이지만 복잡다단한 도시의 형태들과 다양한 상태의 하늘은 미묘한 긴장 속에서 목가적인 명징함을 선사한다"라고 해석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화면을 압도할 것 같은 광활한 크기의 하늘과 이에 대비되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러내고 있는 건물들의 모습은 현실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 줬다.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안동문은 22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동아미술제 등에서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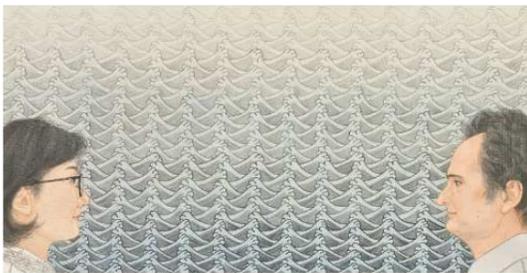
**모던아트쇼 개인부스전 이경림(86동양)**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골판지작가 이경림 동문의 개인부스전이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개최된 모던아트쇼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은 대표작 감천동 풍경과 함께 새롭게 작업하고 있는 눈 쌓인 정원 풍경, 뉴욕 맨하탄의 밀집된 빌딩풍경 그리고 금강산의 밀집한 봉우리를 표현한 겸재 오마주 작

품을 선보였다.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뒤 골판지를 가지고 입체적인 추상표현 작업을 해온 이동문에게 포장재의 역할을 마친 골판지는 재생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골판지는 이동문에게 이동문은 이 폭신하면서도 매력적인 무늬를 지닌 골판지를 가지고 화면을 짜깁기하듯이 붙이고, 그 위에 색을 입히며, 종이부조적인 표면을 만들었다. 이동문의 작품은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사람과 사람들이 빈틈없이 밀착하여 공존하는, 마치 모두 다르면서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의 곡을 만들어가는 아카펠라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각자 존재하는 곳에서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과 자세들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지도 정두희(97동양)**



정두희 동문의 개인전 '가족지도'가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팔판동 갤러리도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가족지도'의 시작은 정동문이 2017년 개인전 '플로리다 가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정동문은 서로 다른 문화와 개성을 가진 가족들을 가계도

속 초상화로 담아내고자 했다. 2019년 개인전 '삼시세끼'에서는 한국인 아내와 미국인 남편이 먹는 음식 이야기를 통해 두 문화의 차이를 드러내고 동시에 그 차이점을 이해하며 살아감을 표현하였다. 정동문은 이제 서로의 다름과 차이가 생기는 근원에 대해 궁금해졌고, 원인이 서로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초대전은 집단 가족초상 및 각 가족의 지리적 공간을 보여주는 가족지도로 구성되었는데, 두 가족의 외형적 특징, 두 나라의 자연 및 문화의 차이를 드러낸다. 모교와 동 대학원에서 동양화 박사과정까지 마친 정동문은 현재 영남대 교육중점전임 교수로 재직중이며 8회의 개인전을 연 작가로 활동 중이다.

**Dancing Line 김지훈(05동양)**

김지훈 동문의 개인전 'Dancing Line(춤추는 선)'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울 방배동 유중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김동문은 대표 연작인 '후라질맨'의 연장된 주제로 선과 면으로 그린 인간 군상을 추상화한 신작 회화 20여점을 선보였다. 김동문은 학부시절, 한국 수묵 추상의 거장 서세옥(46회화/1929~2020) 동문의 간결한 선묘와 담채로 인간 군상을 그린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 그가 고찰하는 인간의 모습도 타인과 서로 얽히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라 깨닫고 '후라질맨'부터 현재의 색면 추상까



지 다양한 형식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신작은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을 형상화하고자 선과 면을 사람으로 비유해 각 도형에 변형을 가하고 자유로운 변주를 통해 드러낸다. 모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졸업한 김동문은 18회의 개인전과 3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또한 단원미술제와 가송예술상, 유중아트센터 신진작가상, IBK기업은행 신진작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단국대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0-phasing-1 아하컬렉티브(11동양)**



미디어아티스트그룹 아하컬렉티브가 지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논현동 플랫폼엘 컨템포러리아트센터에서 '0-phasing-1'이라는 다원예술 전시를 가졌다. 타악기그룹 아우어퍼쿠션과 콜라보한 이번 전시는 0과 1 사이의 시공간 위에서 미디어 설치

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페이징 기법에서 착안한 소리의 반복적 중첩을 시작으로, 퍼포머의 개입에 의해 확장되고 상쇄되기도 하는 일련의 변화들이 공간의 여백을 메웠다. 11학년 동양화과 김삿별·박주애·정혜리·최지원 동문 등 4명의 멤버로 구성된 아하컬렉티브는 전통문화 콘텐츠와 현시대 이슈의 연결점을 모티브로 작업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이다. 한국문화콘텐츠에 대한 발제를 기반으로 주요한 텍스트를 미디어 기반의 서사방식을 통해 탐구한다. 매년 작곡가, 시각예술가, 개발자와 협업하는 시스템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의 맥락, 사용하는 도구의 물성, 주변을 둘러싼 인적·시공간적 환경의 연대가 맞물릴 때 발현되는 파급력을 기대하며 작업하고 있다.

**삶은 초콜릿보다 달콤하다 윤지하(16동양)**

윤지하 동문의 두번째 개인전 '삶은 초콜릿보다 달콤하다'가 지난 8월 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방배동 갤러리빈치에서 열렸다. 윤동문은 이번 전시를 통해 허무에 잠식된 인간의 자화상이 아닌, 삶에의 의지를 느끼는 반항하고 생동하는 삶과 존재의 자화상을 선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허무의 페르소나는 즉흥적 표현과 연출 그리고 비유적 표현 등을 통해서 표현되며, 이를 통해 더욱 극적인 일상성을 느낄 수 있다. 윤동문은 2020년 허무의 페르소나 전을 시작으로 삶과 존재의 무상함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어있



고 무의미하다'와 같은 허무에 대한 부정적 정의와는 달리 윤동문은 허무를 유(有)의 토대가 되는 무(無)로서, 삶에의 의지 즉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정의한다. 이를 '삶에 대한 사력'이라고 윤동문은 말한다. 그러나 이번 '삶은 초콜릿보다 달콤하다' 전시에서 윤동문은 허무에 잠식된 인간의 자화상이 아닌, 삶에의 의지를 느끼는 반항하고 생동하는 삶과 존재의 자화상을 선보였다. 현재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윤동문은 갤러리빈치의 기획공모전으로 '허무의 페르소나' 개인전을 가졌다.